잠들던 8세기 사찰 수미단 터 발견

日 교토시, 사이지 사지 발굴 결과 발표

1천년 숨겨졌던 사찰확인
토지는 세계문화유산이나
사찰은 소실 후 재건못해
초유의 발견에 학계 주목

박영빈 객원기자

1천여년 가까이 규모가 짐작되지 않던 사찰의 비밀이 풀리고 있다. 일본의 문화수도인 교토를 지키던 사이지(西寺)의 사지발굴 조사에서 발굴팀이 드디어 강당과 수미단 터를 찾아냈다. 10월 22일 일본의 '교토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의 주요언론들은 사이지 발굴조사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다.

794년 교토가 일본의 수도로 지정되면서 일본 조정은 수도와 나라를 지키는 관사(官寺)로 교토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토지(東寺)와 사이지(西寺)를 건립했다. 두 사찰이 건립됨에 붙여 교토 시내에는 그 어떤 사찰의 건립도 허용되지 않았다.

토지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현존하는 반면, 사이지는 10세기와 13세기 경의 대화재로 소실된 후 재건되지 못했다. 사지는 공원으로 변하여 규모와 구조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역사기록에서 사이지는 일왕이 주관하는 법회를 개최하고, 출가자들의 승적을 관리하는 등 격이 높은 사찰이었다.

교토시 문화재보호과가 주관해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사이지 사지 발굴조사에서 그동안 규모와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던 강당터가 불상을 봉안했던 수미단의 터와 함께 발견됐다. 교토시는 22일 오후,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발굴지 현지설명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대신해 보도자료와 발굴자료를 공개했다.

발굴된 강당의 토대는 안 길이 25m, 폭 39m, 수미단은 안 길이 6.3m, 폭 17m로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토지의 강당에 비해 동서의 폭이 좁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교토시 문화재보호과 측은 "사료에 따르면 토지의 강당이 사이지보다 뒤에 지어졌다는 점에서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굴된 강당의 규모나 기둥간의 간격이 당시 왕궁의 규모와 같은 간격이라는 점에서 매우 격이 높은 건물"이라고 밝혔다. 사이지의 강당은 사이지가 처음 건립되던 당시 가장 먼저 건립된 중심 건물로, 예불과 함께 승가교육이 이루어졌던 복합적인 시설이다.



발굴된 강당터와 수미단터를 설명하는 발굴팀.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이번 발굴결과에 대해 일본고고학계의 반응은 뜨겁다. 교토산업대학의 스즈키 히사오 교수는 "토지의 강당은 수미단에 21구의 불상을 모신 입체만다라가 봉안되어 있기에 수미단의 규모가 큰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이지의 수미단도 예상외로 큰 크기"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스즈키 교수는 "발굴된 수미단의 크기에서 추정해 볼 때, 사이지의 강당도 최소한 삼존상이나 사천왕상을 함께 모셨을 것이다. 아마 당시 당에서 들어온 선진불교였던 진언밀교의 영향으로 하나의 세계관을 수미단 위에 건립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긴키대학의 아미 노부야 교수는 "사이지가 토지에 비해 먼저 완공되었고, 승적을 관리하는 등의 관청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사이지는 당시 기존불교의 주류였던 현교(顯教)를 중심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미 교수는 "교토의 중심대로를 기준으로 좌우를 나누었다는 점과 두 사찰의 규모가 다르다는 점에서 동쪽을 밀교, 서쪽을 현교로 하는 당시의 종교정책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귀중한 발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견으로 사이지는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약 105평방미터의 사지보다, 더 큰 규모로 조영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현재 발굴팀은 기록상 존재하는 사이지의 오층탑 터와 요사채 터 등을 추가적으로 찾고 있다.

인도 최하위계층 230명, 불교 개종

개종운동 64주년 기념
"소녀 살해사건에 분노"


불교로 개종한 달리트들이 BR암베드카르 박사의 종손 레이라탄 암베드카르와 스님들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출처=theprint.

인도 카스트제도의 최하층 계급 달리트(Dalit) 230명이 카스트제도에 반발하며 불교로 개종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카스트제도의 특권층 남성들로부터 강간·살해당한 달리트 소녀의 죽음에 분노하며 개종을 결심해 이목을 끌었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 등의 10월 2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州)의 가지바드시(市)에서 230명 이상의 달리트가 불교로 개종했다.

이날 개종식은 1956년 정치·사회 개혁가 BR암베드카르 박사에 의해 최초로 시작된 개종운동의 6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암베드카르 박사의 종손 레이라탄 암베드카르(Rairatan Ambedkar)도 참석했다.

개종식에 참여한 파완 발미키(27)는 가지바드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입사 지원했던 일화를 털어놓으며 "달리트로서 조회되는 소위 '예약 카스트'로 불리는 인도의 단체와 연관된 성(姓) 때문에 청소부 업무만 제안받았다. 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그 단체는 공식적으로 역사·사회적 장벽을 허물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했다.

그는 "나는 청소부에 지원하지 않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우리는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이러한 차별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종식은 지난 9월 14일 뉴델리와 아그라 사이에 위치한 하트라스 출신 19세 달리트 소녀 마니샤 발미키가 상위 카스트 계층의 남성 4명으로부터 강간 후 살해당한 사건에 항의하는 취지도 반영됐다.

이 사건은 카스트에 기반한 잔학 행위로 전국적 분노를 일으켰다. 특히 당국 경찰은 마니샤 발미키의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시신을 화장해 논란에 부채질을 했다.

개종식에 참여한 인더 람(65)은 "19세의 달리트 소녀가 성폭행도 모자라 살해까지 당한 일을 보면서 개종하기로 결심했다"며 "불교에는 카스트가 없다. 불교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인간"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브라질 상파울로시, '불교 초조의 날' 제정

100년전 상륙한 일본인 스님 기려
10월 18일 공인기념식
이바라키 닛스이 스님
50주년 기념법요 겸해


공인 기념식에서 공인서를 전달하는 노무라 상파울로 시의원. 사진출처=닛케이 신문

브라질에 최초로 불교를 전한 일본인 스님을 기려, 상파울로시가 기념일을 제정했다. 10월 20일 일본의 '닛케이 신문'은 현지에서 열린 기념일 공인식의 모습을 보도했다.

지난 10월 18일, 상파울로시 빌라 마리아나구에 소재한 닛쿄지(日教寺)에선 '브라질 불교 초조(初祖)의 날(Dia do Padroeiro do Budismo no Brasil)' 제정을 공인하는 공인기념식이 봉행됐다.

이번 기념식은 기념일의 주인공인 이바라키 닛스이 스님(1886-1970)의 50주기 기념법요식과 함께 진행됐다. 닛스이 스님은 법화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본문불립종(本門佛立宗) 스님으로 22세에 브라질에 입국 후 63년간 입적에 들 때까지 전법활동을 펼쳤다.

스님은 태평양을 넘어선 땅에 불법을 전하라는 은사의 부촉을 받고 브라질 최초이민자인 781인의 일본인들 중 한 명으로 브라질에 도착했다. 1908년 6월 18일 브라질 산토스 항에 입항한 스님이 하선자 명부의 직업란에 '승려'라고 쓴 것이 브라질에 최초로 상륙한 불교 출가자의 증거로 전하고 있다.

스님은 생전 브라질 각 지역에 7곳의 사찰을 건립하고 제자들과 신도를 양성했다. 또 뒤따라 포교를 위해 입국한 일본인 스님들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등, 브라질에 불교가 전해지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7월 닛스이 스님의 제자들과 현지불교계의 꾸준한 노력 끝에, 상파울로시는 닛스이 스님의 업적과 입국기록 등을 근거로 브라질 불교의 '초조(Padroeiro)'라는 칭호를 공인했다. 브라질 역사교과서에서도 불교의 첫 전래자로 닛스이 스님이 게재될 예정이다.

칭호 공인이라는 결과에 힘입어 일본이주민의 후손인 노무라 아우렐리오 시의원이 상파울로 시의회에 기념일 제정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 지난 1일 시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의안이 가결됐다. 기념일은 스님이 최초로 상륙하고 예불을 모셨던 6월 18일로 정했으며 이름은 '브라질 불교 초조의 날'로 제정됐다. 시의회 측은 "닛스이 스님은 생전 희생적인 기여로 브라질에 다양하게 공헌을 세웠다. 이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결의안을 가결한다. 이번 기념일은 브라질 불교에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념식에선 결의안을 상정한 노무라 시의원이 직접 본문불립종 일본교구장인 다카사키 닛켄 스님에게 기념일 공인 인증서를 전달했다. 기념식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석하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캄 불교계, 최악 홍수피해 속 자비행

시아누트 라자 불교대학
피해가구에 물품 등 지원


구호활동 중인 불교계. 사진출처=소베치아 스님 페이스북.

캄보디아가 약 1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홍수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불교계가 침수 피해를 입은 취약 계층을 위한 구호 활동에 나섰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의 10월 2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불교계는 프레아 시아누크 라자 불교대학(the Preah Sihanouk Raja Buddhist University)의 바탐방 분교 총장인 소베치아 스님을 중심으로 자연재해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베치아 스님은 캄보디아에서 저명한 사회활동가로도 평가된다.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은 캄보디아 내에서도 최대 쌀 생산지로 꼽힌다. 때문에 바탐방 지역의 침수 피해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전 지역의 쌀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베치아 스님은 "우리의 지원은 제한적이지만 지난 이틀(21~22일) 동안 61가구를 원조했고, 앞으로 80여 가구를 더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지역 가톨릭계와의 협력 계획도 밝히면서 "종교계가 힘을 합쳐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들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불교계로부터도 지원을 받았다"며 "우리는 더 많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교 단체로서 인종·피부색·신념·신앙 등에 근거해 차별치 않고 지원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